

광주·전남 첫 '외국인 진료센터' 나주에 문 연다

폐업 방치 옛 영산포 제일병원에 공공형 병원 착공...상반기 개소 종합병원급 시설 의료사각 해소

광주·전남 첫 '외국인 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 나주에 들어선다.

나주시는 최근 이창동 옛 영산포 제일병원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열었다.

이 병원 건물은 지난 2019년 11월 폐업한 뒤 빈 건물로 방치돼왔다.

나주시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진료센터를 갖춘 공공형 병원을 올해 상반기에 문 열기로 했다.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병원은 건물을 인수한 세화의료재단이 운영한다.

나주시는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외국인 진료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창동) 건물을 활용해 광주·전남 첫 외국인 진료센터를 갖춘 공공형 병원을 열기로 하고 최근 착공식을 열었다. <나주시 제공>

이다.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와 입원실,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등을 갖춘 예정이다.

이달 현재 나주에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약 8000명의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에는 모두 7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올해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응급실을 갖춘 공공형 의료시설이 새로 문 열면서 영산포·남부권 주민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나주시 측은 기대했다. 이 밖에도 나주시는 영산포 일대에서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흙여명품 음식점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센터 착공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 지역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등이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준 세화의료재단 김미순 이사장에게도 감사의 전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새해 첫등이 탄생 강진원 군수 축하 영상통화

강진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첫등이 축하 행사를 열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일 첫등이를 낳은 부모와 영상 통화를 하고 축하와 덕담을 건넸다.

강진군에 사는 20대 부부는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에 첫째 '뽕' (태명)이를 4.05kg로 건강하게 출산했다.

강진군 보건소 직원들도 새해 첫날 기쁜 소식을 전한 부모에게 청문 인형을 선물했다.

강진군의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153명으로, 전년(93명)보다 65% 증가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을 100만원에서 154만원까지 늘린다. 둘째아 이상 출산 때 첫만남이용권도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담양군 기부금 22억원 돌파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만에 기부금 22억원을 돌파했다.

담양군은 지난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에 누적 1만2174명이 동참한 가운데 22억4000만원을 모금했다고 2일 밝혔다.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가 1만49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고 기부액인 500만원 기부자도 83명에 달했다.

지난 한 달간 10만원 기부는 4076건으로, 12월 기부금의 91.6%를 차지했다.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 기부 참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담양군 측은 풀이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이전부터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홍보단을 구축하는 등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재경, 재광, 재제조 담양군 향우회나 서울 봉은사, 제주도 관음사 등을 직접 찾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특색 있는 담양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나상호 선수와 함께한 홍보 영상과 소주병 뒷면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문구를 부착하는 홍보가 이목을 끌었다.

대나무죽제를 포함한 지역축제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에는 KTX 광주 송정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기부제를 홍보했다.

담양군은 총 4차례에 걸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해 쌀, 죽순, 떡갈비, 한과 등 43개 품목, 120여 개 상품을 등록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할 기금사업으로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퇴원 환자 통합 돌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담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담양을 상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선정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환경부 전국 16곳 신규 지정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장성 황룡강 등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황룡강을 포함한 16곳은 국가하천으로 신규 지정됐고, 4곳은 구간 연장이 결정됐다.

황룡강 국가하천 구간은 장성을 장성댐 여수로 하단부터 광주시 서봉동 기점까지 27.5km 규모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관리를 국가가 맡는다. 정부는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 예산 103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황룡강을 관리하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를 더 철저히 대비하게 된다. 기존 황룡강 정비에 들었던 예산을 절감해 군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장성군 측은 설명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변화가 기회가 되도록, 여러모로 논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환경오염 우려 화순탄광 지하 갱도 수물 안된다"

시설물 그대로 두고 수장 계획 주민 등 300명 규탄 꺾기대회

폐광한 화순탄광의 지하 갱도에 지하수를 가득 채워 넣는 사후관리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순군 폐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연)는 지난 29일 화순군 동면 옛 화순광업소(화순탄광) 앞에서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규탄 꺾기대회를 열고 "지하수뿐만 아니라 영산강까지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각종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수장하겠다는 구상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꺾기대회에는 폐광비상대책위원회와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전남도의원, 화순군의원, 화순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갱도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침수하겠다는 일방통보식 결정을 내렸다"며 "갱도가 이대로 수물된다면 우리가 직접 내부에 진입해 방치된 폐유 등을 꺼내고 배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올해 폐광 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갱도 배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며 "당장 이 달부터 침수 위기에 놓여있는 갱도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문



화순군 폐광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9일 화순군 동면 옛 화순광업소 앞에서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규탄 꺾기대회'를 열고 조기 폐광된 화순탄광 갱도에 대한 수장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닫은 화순탄광의 지하 곳곳에 뚫려있는 갱도에 지하수를 채워 넣어 지하 침하나 붕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광해 복구란 광산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로, 지하 갱도의 경우 지하수를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화순탄광 갱도에 지하수를 채우지 않고 폐광 직후 상태로 유지하려면 배수와 정화 등에 연간 87억9000만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탄광 시설 일부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주장하는 화순군도 이러한 계획이 공개되자 용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견해를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